

김 윤 희 사무관
(02-2100-2881)

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

- FSB는 '18.11~12월 중 미국·유럽 등을 위주로 자본시장이 약세를 보인 반면,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었다고 평가
 - 미국·유럽 등 글로벌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되고, 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시장 환경도 긴축
- 노딜 브렉시트(No-deal Brexit)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

②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**10년간**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
- FSB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 - 그동안 ①중앙청산소(CCP; Central Counterparty), ②인프라금융(infrastructure financing) 등 **2건** 평가를 완료('18.11월 공개)하였고, 현재 ③중소기업 자금조달(SME financing) 분석 진행 중

③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

- (시장 분절화*; market fragmentation) 금융규제개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시기와 정도에 대한 국가간 불일치(inconsistencies)가 금융회사와 기업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

*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분화되는 현상

- (금융혁신)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금융당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·정리하고, 분산원장·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- (기타)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영향,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,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등

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

-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*을 보였고, 채권시장에도 외국인자금 지속 유입*되는 등 양호하다고 평가함

* 글로벌 주가변동(% , '18.11 ~ 12월중): 한국(코스피, +0.56), 미국(다우, △7.12), 영국(FTSE100, △5.61), 일본(니케이225, △8.69)

**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(조원): ('18.11월) +0.5 → (12월) +1.5

- 경상수지 흑자 장기화(80개월 이상)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고, 경기둔화 우려가 '18.10월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
- 다만, 대외 변수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하고 있음
- 부위원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,
 -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·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

②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

- 부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FSB 분석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포함

- 한국의 경우 은행권의 중기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현상은 없었음

* 중기대출 잔액(조원, 말잔): ('07)400 ('09)485 ('11)500 ('13)512 ('15)599 ('17)672

-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금융규제보다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명함
- 한국은 신성장동력인 우수 기술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'14년 이후 기술금융·동산금융 등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 추진 중
- 또한, 기술특례상장,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1월 15일(화, 현지시각)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「국제금융인의 밤」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
- (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) 부위원장은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
- (국제금융인의 밤) 부위원장은 「제3회 국제 금융인의 밤^{*}」에 참석하여 중국의 관문(gateway)인 홍콩에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정책제안을 청취

*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, 법률·회계 등 전문직,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 (공동주최: 주홍콩총영사관·한국산업은행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